

새로 발견된 古書

石樓記聞

최근 국학(國學)분야의 새로운 사료(史料)와 각종 부문 자료(資料)들이 발견되어 그것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음은 이방면 연구에 가일층 커다란 활력(活力)을 부여 이르고 있어 무척 호뭇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여러가지 경로(經路)를 통해서 나온 많은 사료와 자료들은 학문적 시각(視角)에서 엄밀한 분석과 비판의 작업(作業)을 거쳐 사료가치(史料價值)가 판단되고 측정되어야 할 일이다. 역사학 처럼 광범한 범위에 걸쳐 관계되는 성격의 학문에 있어서는 그 보조학과(Auxiliary Sciences, Hilfswissenschaften)에 속하는 것으로는 어쩌면 이 세상 모든것이 포함될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제로 역사학은 그 연구분야에 따라서는 특정한 보조학과단이 필요한 것이지만 모든 보조학과가 언제나 일반적으로 역사연구에 도움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고도서(古圖書)와 고문서(古文書)란은 역사연구에 있어서 보조학과와 중심이 되는 것이다.

필자가 그간에 모아 놓은 고도서와 고문서 가운데에서 한국사 연구에, 그리고 국학일반(國學一般)에 도움 될 새로운 고도서를 공개하려 하는 것이다. 사료로서 충분한 가치가 인정되는 아직 공개되지 아니한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여기서 사료비판(Quellenkritik)이나 또는 사료연구(Heuristik)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새로 발견한 사료는 연구자들에게 우선 공개하여야 된다는 학문적 자세에서와 또한 다행히 조금이라도 도움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간단한 해설을 부쳐 소개하기로 한다.

1. 《石樓記聞》의 체제(體裁)

수사본(手寫本)

세로(縱) 22cm, 가로(橫) 16cm.

매반열(每半葉) 9행(行), 매행(每行) 25자 내외

권수(卷數) 총 8권(總八卷)

매권당(每卷當) 총매수(總枚數) 평균 45매 전후 즉

本文은 紙面 關係로 몇 行만 紹介 한다.

石樓記聞卷一

宣祖京城南部明洞居趙監役憲植有一子名曰元龍元龍之爲人清秀明敏年方十五尙未成冠而嘗做業於隣洞書堂一日元龍挾册將還適值黃昏有一女兒可十四五着綠衣紅裳立於路左而見元龍少不避之元龍舉目視其女則閉月羞花之態沉魚落雁之容也一見而心蕩放蕩佇立不能去該女自懷中出一小鏡翻示鏡之前後又以手指屈三指而遂入洞口去元龍亦還家自此元龍思其女寢食不甘而遂成病委席呻吟憲植及母尹氏心焦入問元龍曰汝詳言病生之裏許也元龍曰小子之病別無痛處而但心鬱氣困也憲植即邀醫試藥少無差效而病勢日益危篤其姊崔潤大之妻聰慧出倫從容問元龍曰吾詳察汝之病狀則汝必有戀人之懷而不得見之故如是成病也元龍曰小弟豈有戀人之懷也願姊主更勿出妄言焉姊曰吾已察汝之病證則專由於戀人而汝何欺我至此乎元龍曰姊主又出不當之妄言耶小弟豈有戀人之心也姊曰汝詳言心中之所懷則吾當使汝成事也元龍曰姊主如是屢問小弟何敢有秘密之言乎仍言曰三四日前小弟自書堂歸家之時路逢一美兒而該女自懷中出一小鏡翻示鏡之前後又以手指屈三指而去故小弟由是思其女而不得更見至於成病也姊笑曰汝何不往見而抱生病耶元龍曰小弟莫知該女之心且不知該女之居住故不敢往見也姊曰汝以讀書之人尙不解其意乎元龍曰姊主能解知其意耶姊曰如此之事吾豈不解知也元龍曰願聞該女之意也姊曰鏡之前知月之望鏡之前知月之晦而翻示前後益以望晦兩日爲

90면(面)

2. 해설

이 石樓記聞의 纂者는 알 수가 없는 것이 매우 유감이다. 따라서 어느 때에 만든 것인지도 정확히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제본(製本) 솜씨로 보나, 지질(紙質)로 판단해서 1910년 이후에 속한다. 즉 외양(外樣)은 전형적인 한장본(漢裝本)이지만은 속은 일제(日帝)시대에 만든 인찰지(세로 22cm, 가로 16cm)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본시 이 石樓記聞은 모두 8권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발견한 것은 5권 뿐으로 나머지 3권은 아직 찾아 내지 못했다.

그러면 石樓記聞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가. 여기에 記聞의 卷1의 첫번부터 20매 즉 40면까지를 읊었다. 이 石樓記聞은 그 제일책이 2권 1책으로 되어 있고 제일 권은 102건(件)의 기사(記事)를 수록하였으며 2권은 92건의 기사가 들어있다. 그리고 여기에 읊진 것은 1권 102건의 기사 가운데에서 26건의 내용이다. 즉 위로는 국왕으로부터 이름없는 시정인(市井人)과 기녀(妓女)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사건중심(事件中心)이 아니라, 인명중심(人名中心)의 여러가지 일들을 기록하여 놓은 것이다. 그런데 누구인지 모르는 이 石樓記聞의 찬자는 이러한 기사(記事)들을 어떠한 문헌에서 뽑아 놓은 것인지 그 출처(出處)를 하나도 밝히고 있지 않은 점은 대단한 실책이 아닐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를 지적하면 인물중심의 기사이니만치 그 인물을 시대순(時代順)으로 쓰지 아니한 것도 이 책의 가치를 그만큼 떨어뜨리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石樓記聞 卷1에 수록된 194건의 기사 가운데에서 90%가 국왕과 높은 벼슬을 가진 사람들에 관한 기사로 차 있는 것은 이 책이 지닌 높은 수준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신빙성이 없는 야록(野錄)이 아니라, 宣祖 이후의 인물 중심으로 엮은 근대 조선의 측면사(側面史)라 할만 한 책이다.

柳永博(서울대학교 文理大 教授)